Ⅰ 정답

1	③	2	③	3	①	4	③	5	⑤
6	⑤	7	⑤	8	②	9	③	10	①
11	④	12	③	13	①	14	②	15	④
16	②	17	①	18	②	19	⑤	20	①
21	④	22	①	23	④	24	④	25	⑤
26	②	27	②	28	④	29	②	30	④

해 설

1. [ ] 한자의 특징을 안다.
‘ ’를 뜻하는 ‘養’을 찾는다.

2.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 ‘感’ 느낄(감), ㉡ ‘盲’ 눈멀다(맹)

3.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한자는 ‘벗(우)’자이다.

4.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ㄱ. 맑다 – 흐리다, ㄴ. 비다, ㄷ. 보다, ㄹ. 더하다 – 덜다

5.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① 투표 : 각 사람의 의사를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투표함에 넣는 일. ② 추천 :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③ 당선 : 선거에서 뽑힘. ④ 발군 : 여럿 가운데에서 특별히 뛰어남.

6. [출제의도] 한자 어휘를 활용한다.
⑤ 약관 : 남자 나이 20세를 일컬음.

7.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맞추어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의 뜻이다.

8.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가로 열쇠는 ‘계구우후(鷄口牛後)’이고, 세로 열쇠는 ‘구우일모(九牛一毛)’이다.

9. [출제의도] 어휘와 의미를 안다.
① 전래, ② 전습, ③ 전염, ④ 전입, ⑤ 전송

10.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여덟 개의 글자 중 네 자를 골라서 성어를 완성하고, 그 속뜻을 찾아내는 문항이다.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사자성어는 ‘견물생심(見物生心)’이다.

11.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 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 일의 근심을 면한다.

12. [출제의도]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한자 발음은 모두 다르며, 표기도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한자는 같지만 한국, 중국, 일본이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휘도 있는데,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문화를 이해하는 문항이다.

13.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①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고, 오직 사람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② 부귀는 얻기 쉬우나 명성과 절개는 보존하기 어렵다. ③ 사람을 의심하면 등용하지 말고, 사람을 등용하면 의심하지 마라. ④ 남에게 베풀고는 삼가 생각하지 말고, 베품을 받고는 삼가 잊지 마라. ⑤ 앞서면 곧 남을 제압하고, 뒤지면 남에게 제압당한다.

14.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사람의 잘못은 언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많다.

① 정신을 한 곳에 이르게 하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②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 ③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지고, 주사(朱砂)를 가까이하는 사람은 붉어진다. ④ 말은 행동과 다르지 말고, 행동은 말과 다르지 말라. ⑤ 스스로 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감히 그를 가벼이 여기지 못한다.

15. [출제의도] 단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진실로 배웠으나 힘써 행하지 않으면 비록 만 권의 책을 읽어도 또한 소용이 없다.

① 신의, ② 성의, ③ 근검, ④ 실천, ⑤ 여유

16. [출제의도] 성어의 의미를 안다.
‘교언영색’은 ‘남의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의 뜻이다.

17. [출제의도] 단문을 읽고 풀이한다.

> 너를 잘 사용하면 천지만물의 이치를 모두 묘사해 낼 수 있지만, 너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충사와 흑백을 모두 뒤바꿀 수 있다.

제시된 글은 실용문의 일종으로 제목은 ‘필명(筆銘)’이다.

[18 ~ 19]

> 자공이 정치를 물었다. 공자가 말하였다.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풍족하게 하며,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어쩔 수 없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군대를 버려야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어쩔 수 없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양식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거니와, 백성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18. [출제의도] 한자의 특징을 안다.
㉠은 ‘이것’이라는 뜻이다.

19.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공자는 정치에서 경제력과 군사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회적 신뢰라고 했다. 군주가 군주다워지고 덕치를 실현할 때 백성은 군주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은 저절로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20 ~ 21]

> 영조가 친히 간택(하는 자리)에 임할 때 사대부의 여자들을 궁중에 모아 놓았는데, 왕후가 홀로 자리를 피하여 앉거늘, 왕이 물었다. “왜 피하는가?” 왕후가 말했다.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 있으니 어찌 감히 자리에 앉겠습니까?” 대개 간택할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방석의 끝에 써 놓았기 때문이다.

20.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1.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은 ‘쓰다’로 풀이한다.

[22 ~ 23]

22. [출제의도] 단어의 짜임을 안다.
①은 병렬 관계의 단어이다.

23. [출제의도]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제시된 글은 토정 이지함이 임금께 올린 상소문의 일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자원을 개발하면 백성에게 무한한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말하고 있다.

[24 ~ 25]

> 하루는 아내가 몹시 굶주려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니 독서는 무엇 하려고 하세요?”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 책읽기가 아직 덜 됐소.” 아내가 말했다. “장인바치가 있질 않습니까?” 허생이 말했다. “장인바치는 본래 배우질 않았으니 어찌하겠소?” 아내가 말했다.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허생이 말했다. “장사는 본전이 없으니 어찌하겠소?” 아내가 성내며 꾸짖어 말했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어찌하겠소’만 배웠소? 장인바치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면 도적질은 왜 못해요?”

24.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허생전(許生傳)은 조선의 허약한 경제 상황을 비판하고, 대의명분에만 사로잡힌 양반의 무능과 허례허식을 풍자하였다. 제시된 글에서 ㉠, ㉡, ㉣은 허생을 가리키고, ㉢은 아내를 가리킨다.

25.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6 ~ 27]

>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리니 임금이 그를 크게 기특하게 여겨 회답하여 말했다. “만덕에게 만약 소원이 있다면 어려움과 쉬움의 여부를 묻지 말고 특별히 그에게 베풀어 주어라.” 목사가 만덕을 불러 임금의 말씀으로 그에게 말했다. “너는 무슨 소원이 있느냐?” 만덕이 대답했다. “(다른) 소원은 없으나, 원컨대 서울에 한 번 들어가서 임금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일만 이천 봉우리를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중략) 목사가 또 그 소원을 상주하니 임금이 그 소원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26.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약(若)’에는 ‘같다’, ‘만약’, ‘너’ 등의 뜻이 있다.

27. [출제의도] 산문을 읽고 풀이한다.

[28 ~ 30]

> (가) 오래된 절 문 앞에서 또 봄을 보내니,/ 지는 꽃잎 비를 따라 옷에 자주 점을 찍네./ 돌아오는 길 소매에 가득 맑은 향기 남아,/ 셀 수 없이 많은 산 벌 멀리까지 따라오네.
> (나) 두 사람이 마주하고 술을 마시는데 마침 산의 꽃들이 피고,/ 한 잔 한 잔 다시 또 한 잔./ 나는 취해서 잠자려 하니 그대 이만 떠나오,/ 내일 아침에 생각이 있으면 거문고 안고 오게나.

28. [출제의도] 한시를 읽고 풀이한다.
復은 ‘다시(부)’와 ‘회복하다(복)’으로 쓰이는데, ㉣은 ‘다시’로 쓰였다.

29.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30. [출제의도]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나) 시는 ‘시선(詩仙)’으로 불리는 성당(盛唐) 때 시인 이백의 작품으로 속세를 벗어나 은둔하여 지내는 탈속적인 정취를 호방하게 나타내고 있다. 셋째 구에서 시적 화자는 친구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를 통해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